

청소년의 가출 경험 여부가 성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박 현 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간호학과

Influence of Runaway Experience on Sexual Victimization in Adolescents

Hyunju Park

College of Nursing, Chuncheon Campu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runaway experience on sexual victimization in adolescents. **Methods:** The data of the Korean Survey on the Rights of Youth and Children (2016) were used. A total of 7,114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 χ^2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AS 9.3. **Results:** About 3.8% of the total students had run away from home before and 4.1% of the students experienced sexual victimization. The results from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adolescents who had run away from home before showed a higher risk of being sexually victimized (AOR: 1.76, 95% CI: 1.13~2.72). Lower economic status (AOR: 1.42, 95% CI: 1.03~1.97), suicidal ideation (AOR: 1.80, 95% CI: 1.37~2.38), depressive feelings (AOR: 1.36, 95% CI: 1.04~1.78), victims of violence by teachers (AOR: 1.56, 95% CI: 1.20~2.03), victims of off-line school bullying (AOR: 5.00, 95% CI: 3.56~7.01), victims of on-line bullying (AOR: 2.61, 95% CI: 1.79~2.80), and victims of both on- and off-line bullying (AOR: 6.62, 95% CI: 4.76~9.22) showed a highest risk of being sexually victimized. **Conclusion:** Therefore, in order to lower the rate of experiencing sexual victimization in youth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keep them from running away from home. In addition, if necessar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secondary mental traumas that may arise from the experience of sexual victimization.

Key Words: Runaway; Sexual victimization; Adolescent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4년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약 2만 명을 조사한 결과, 11.0%에 해당하는 학생이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1]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청소년은 여러 가지 안전치 못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

문에 이차적으로 절도, 성범죄 등 다양한 문제행동 및 위험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2] 가출 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종설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출 청소년에 관한 연구의 내용들은 주로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과 가출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문제(sexual problem)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3]. 실제로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 가출의 실태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Corresponding author: Hyunju Park

College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Kangwondaehak-gil, Chuncheon 24341, Korea.
Tel: +82-33-250-8879, Fax: +82-33-242-8840, E-mail: hpark@kangwon.ac.kr

Received: Jul 22, 2019 / Revised: Aug 5, 2019 / Accepted: Aug 5, 2019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가장 많으며[2,4-7] 그 다음으로 가출 청소년의 우울이나 자살 생각과 같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8-10]. 가출 청소년의 성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성희롱, 성추행 등을 포함한 성문제 전반에 관한 피해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성매매 피해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를 1편을[11]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국한된 연구뿐 만아니라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력을 모두 포괄하는 성 피해 경험 전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가출 및 성 피해 경험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경우 가출 청소년의 17%[12]에서 35% 정도가 성 피해를 경험을 하였다고 [13]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가출 청소년의 성 피해 경험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가출 청소년 5명 중 4명이 성매매 경험을 하며,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절반 정도는 재가 청소년이라는 보도가 있었다[14]. 따라서, 가출 청소년에서 성매매에 국한된 피해 뿐 만아니라,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을 모두 포함하는 성 피해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또한 가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과 비교하여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에서 성 피해 경험의 위험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연구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연구함에 있어서, 성 피해 경험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공변량을 고려한 상태에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 보다 유의하게 높은 성 피해 경험의 위험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외국의 연구에서 성별,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우울감,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가정 폭력), 학교 폭력 경험 등이 청소년의 성 피해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이 성 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으며[15],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은 성 피해 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또한 여자 청소년에서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성 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17,18], 성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약 34% 정도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9].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는 성폭력의 가해자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므로[20],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성 피해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성 피해 경험 관련 변수들을 보정한 상태에서 가출 경험 청소년들이 가출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성

피해 경험의 위험이 높은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가출 경험과 성 피해 경험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가출 경험, 성 피해 경험을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과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성 피해 경험 관련 특성을 보정한 상태에서 가출 경험과 성 피해 경험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러 관련요인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가출 경험과 성 피해 경험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단면연구로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6년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자료이다. 원시자료는 2015년 교육통계연보에 등재된 학교와 전국 16개 시도 지역을 층화변수로 이용하여 층화집락다단계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21].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원시자료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친 후 자료를 제공받았다. 원시자료에는 11,132명의 초·중·고등학생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고등학생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원시자료에 7,333명의 중·고등학생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에 응답하지 않은 학생들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11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는 일반적 특성, 선행연구에서 성 피해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변수, 가출 경험, 성 피해 경험이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학교급(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특성화계 고등학교), 학업성적(상, 중, 하), 가족의 경제 상태(상, 중, 하),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주관적 건강 인식을 포함한다. 학업성적과 가족의 경제 상태, 주관적 건강 인식은 학생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수준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후,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매우 좋지 않은 편과 좋지 않은 편을 '좋지 않은 편'으로 건강한 편과 매우 건강한 편을 '좋은 편'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 성 피해 경험 관련 변수 및 가출 경험

성 피해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변수는 자살생각, 우울감,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 학교폭력 피해 경험, 자아존중감을 포함한다. 교사로부터의 폭력 경험은 선행연구에서 성 피해 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부모만큼이나 교사의 영향력이 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교사로부터의 폭력경험과 성 피해 경험의 관련성을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추가하였다.

자살생각은 원시 조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묻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음은 '자살생각 없음'으로 가끔과 자주 생각한다다는 '자살생각 있음'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우울감의 경우 이유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었는지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은 '우울하지 않음', 그런 편과 매우 그렇 편은 '우울함'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와 교사로부터의 폭력 경험은 최근 1년 동안 부모나 교사(학교와 학원교사 포함)로부터 신체적인 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에 관한 질문의 응답을 이용하였는데, 한 번도 없는 경우(없음)와 한번 이상 경험한 경우(있음)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교사로부터의 폭력 경험의 경우 학교 교사와 학원 교사로부터의 폭력 경험을 모두 포함하였다.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폭력을 따로 조사하였다. 온라인 폭력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선·후배 및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 폭행이나 구타, 따돌림,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협박, 성희롱이나 추행, 강제적인 심부름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여 이에 한 번도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없음', 한 번 이상 있었으면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오프라인 폭력의 경우 인터넷(페이스북이나 SNS 포함)을 통해 욕설이나 모욕, 협박, 성희롱(놀림),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알려짐,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여 이에 한 번도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없음', 한번 이상 있었으면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학교 폭력의 경우 경험 없음, 오프라인 학교폭력 만을 경험함, 온라인 학교폭력 만을 경험함,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교폭력을 모두 경험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4개 문항을 이용하였다. 즉, 내가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지,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로 응답하게 하였다. 따라서, 세 번째 질문은 역코딩을 한 후 4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모두 합산하여 총합을 자아존중감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4개의 문항이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파악하였는데, 요인분석 결과 이 4개의 문항이 factor 1개로 묶이며 eigenvalue 2.16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타당도를 갖추고 있으며, 크론바 알파 값은 0.84로 측정되어 신뢰도 역시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 피해 경험은 최근 1년 동안 성 피해(성과 관련된 놀림이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음과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가출 경험은 최근 1년 동안 가출(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한 적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음과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모든 자료는 SAS 9.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일반적 특성 변수, 성 피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변수, 가출 경험 및 성 피해 경험의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 분

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일반적 특성 변수와 성 피해 관련 변수들과 성 피해 경험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이나 t-test를 통해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가출 경험이 성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기술통계 결과

연구대상자는 총 7,114명으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성별은 여학생 3,632명(51.1%), 남학생 3,482명(48.9%), 학교급은 중학생 3,661명(51.5%), 일반계 고등학생 2,451명(34.4%), 특성화 고등학생 1,002명(14.1%)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적은 ‘상’ 1,949명(27.4%), ‘중’ 2,952명(41.5%), ‘하’ 2,209명(31.1%)으로 조사되었고, 가정 경제수준은 ‘상’ 3,372명(47.4%), ‘중’ 2,701명(38.0%), ‘하’ 1,041명(14.6%)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 2,782명(39.1%), 중소도시 3,546명(49.9%), 읍면 지역 786명(11.0%)으로 조사되었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나쁨’ 1,339명(18.9%), ‘좋음’ 5,766명(81.1%)이었다.

선행연구에서 성 피해 경험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자살생각은 ‘있음’ 1,987명(27.9%), ‘없음’ 5,127명(72.1%)이었다. 우울감은 ‘있음’ 2,691명(37.8%), ‘없음’ 4,423명(62.2%)이었고,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은 ‘있음’ 2,816명(39.6%), ‘없음’ 4,298명(60.4%)이었고, 교사로부터 폭력 경험은 ‘있음’ 2,513명(35.3%), ‘없음’ 4,601명(64.7%)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의 경우 없음 5,285명(74.2%), 오프라인 학교 폭력만 경험 584명(8.2%), 온라인 학교 폭력만 경험 726명(10.2%), 온오프라인 폭력 모두 경험 519명(7.3%)으로 조사되었다. 자아존중감은 평균 11.85±2.50점이었다.

가출 경험은 ‘있음’ 271명(3.8%), ‘없음’ 6,843명(96.2%)이었고, 성 피해 경험은 ‘있음’ 292명(4.1%), ‘없음’ 6,822명(95.9%)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 및 성 피해 경험 관련 변수들과 성 피해 경험의 관련성

일반적 특성 및 성 피해 경험 관련 변수들과 성 피해 경험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단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in Subjects (N=7,114)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Female	3,632 (51.1)
	Male	3,482 (48.9)
School level	Middle	3,661 (51.5)
	High (academic)	2,451 (34.4)
	High (occupational)	1,002 (14.1)
School grade*	High	1,949 (27.4)
	Middle	2,952 (41.5)
	Low	2,209 (31.1)
Economic status	High	3,372 (47.4)
	Middle	2,701 (38.0)
	Low	1,041 (14.6)
Living area	City	2,782 (39.1)
	Small town	3,546 (49.9)
	Rural area	786 (11.0)
Subjective health [†]	Poor	1,339 (18.9)
	Good	5,766 (81.1)
Suicidal ideation	Yes	1,987 (27.9)
	No	5,127 (72.1)
Depression	Yes	2,691 (37.8)
	No	4,423 (62.2)
Violence victimization from parents	Yes	2,816 (39.6)
	No	4,298 (60.4)
Violence victimization from teachers	Yes	2,513 (35.3)
	No	4,601 (64.7)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No	5,285 (74.3)
	Off-line only	584 (8.2)
	On-line only	726 (10.2)
	On/off-line both	519 (7.3)
Self-esteem		11.85±2.50
Runaway	Yes	271 (3.8)
	No	6,843 (96.2)
Sexual victimization	Yes	292 (4.1)
	No	6,822 (95.9)

*4 missings; [†]9 missings.

관련성을 나타낸 변수는 학업성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인식, 자살생각, 우울감,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 교사로부터의 폭력 경험, 학교폭력 피해 경험, 자아존중감, 가출 경험으로 나타났다(Table 2). 그 외 성별, 학교급, 거주 지역은 성 피해 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업성적은 ‘상’(4.6%)이나 ‘하’(4.6%)에 비해 ‘중’(3.4%)에서 성 피해 경험 비율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49$). 경제상태의 경우 ‘상’(3.9%)이나 ‘중’(3.3%)에 비해 ‘하’(7.1%)에서 성 피해 경험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Table 2. Relationships between Each Variable and Sexual Victimization

(N=7,114)

Variables	Categories	Sexual victimization		χ^2 or t	p
		Yes	No		
		n (%) or M±SD	n (%) or M±SD		
Gender	Female	161 (4.4)	3,471 (95.6)	2.03	.154
	Male	131 (3.8)	3,351 (96.2)		
School level	Middle	158 (4.3)	3,503 (95.7)	1.20	.548
	High (academic)	92 (3.8)	2,359 (96.2)		
	High (occupational)	42 (4.2)	960 (95.8)		
School grade*	High	90 (4.6)	1,859 (95.4)	6.03	.049
	Middle	101 (3.4)	2,851 (96.6)		
	Low	101 (4.6)	2,108 (95.4)		
Economic status	High	130 (3.9)	3,242 (96.1)	29.32	< .001
	Middle	88 (3.3)	2,613 (96.7)		
	Low	74 (7.1)	967 (92.9)		
Living area	City	125 (4.5)	2,657 (95.5)	3.03	.219
	Small town	131 (3.7)	3,415 (96.3)		
	Rural area	36 (4.6)	750 (95.4)		
Subjective health [†]	Poor	85 (6.3)	1,254 (93.7)	21.31	< .001
	Good	206 (3.6)	5,560 (96.4)		
Suicidal ideation	Yes	157 (7.9)	1,830 (92.1)	100.97	< .001
	No	135 (2.6)	4,992 (97.4)		
Depression	Yes	166 (6.2)	2,525 (93.8)	46.85	< .001
	No	126 (2.8)	4,297 (97.2)		
Violence victimization from parents	Yes	172 (6.1)	2,644 (93.9)	47.53	< .001
	No	120 (2.8)	4,178 (97.2)		
Violence victimization from teachers	Yes	168 (6.7)	2,345 (93.3)	64.74	< .001
	No	124 (2.7)	4,477 (97.3)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No	99 (1.9)	5,186 (98.1)	356.09	< .001
	Off-line only	63 (10.8)	521 (89.2)		
	On-line only	42 (5.8)	684 (94.2)		
	On/off-line both	88 (17.0)	431 (83.1)		
Self-esteem		10.98±2.70	11.89±2.49	-5.93	< .001
Runaway	Yes	31 (11.4)	240 (88.6)	38.51	< .001
	No	261 (3.8)	6,582 (96.2)		

*4 missings; [†]9 missings.

나타났다($p < .001$). 주관적 건강상태는 낮다고 인지하는 군에서(6.3%) 좋다고 인지하는 군보다(3.6%) 성 피해 경험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성 피해 경험 관련 변수들 중, 자살생각이 있는 군이(7.9%) 없는 군보다(2.6%) 성 피해 경험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또한, 우울감이 있는 군이(6.2%) 없는 군보다(2.8%) 성 피해 경험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p < .001$),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군이(6.1%) 없는 군보다(2.8%) 성 피해 경험

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또한 교사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군이(6.7%) 없는 군보다(2.7%) 성 피해 경험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p < .001$), 학교 폭력피해 경험이 없는 군에(1.9%) 비해 오프라인 폭력만을 경험한 군(10.8%), 온라인 폭력만을 경험한 군(5.8%), 온라인 및 오프라인 폭력을 모두 경험한 군(17.0%)에서 성 피해 경험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가출 경험이 있는 군(11.4%)에서 없는 군보다(3.8%) 성 피해 경험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3. 공변량을 보정한 상태에서 가출 경험이 성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단변량 분석에서 성 피해 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학업 성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자살생각, 우울감, 부모와 교사로부터의 폭력 경험, 학교폭력 경험, 자아존중감을 모두 보정한 상태에서 가출 경험과 성 피해 경험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다변량 분석 결과, 경제상태, 자살생각, 우울감, 교사로부터의 폭력 경험, 학교폭력 경험, 가출 경험이 성 피해 경험의 위험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즉, 가정경제 수준의 경우 '상'에 비해 '하'에서(AOR: 1.42, 95% CI: 1.03~1.97) 성 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이 없는 군에 비해 있는 군에서(AOR: 1.80, 95% CI: 1.37~2.38), 우울감이 없는 군에 비해 있는 군에서(AOR: 1.36, 95% CI: 1.04~1.78), 또한 교사부터 체벌을 경험한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있는 군에서(AOR: 1.56, 95% CI: 1.20~2.02) 성 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교 폭력의 경우 경험하

지 않은 군에 비해, 오프라인 폭력만을 경험한 군(AOR: 5.00, 95% CI: 3.56~7.01), 온라인 폭력만을 경험한 군(AOR: 2.61, 95% CI: 1.79~3.80), 온라인 및 오프라인 폭력을 모두 경험한 군에서(AOR: 6.62, 95% CI: 4.76~9.22) 모두 성 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가출 경험의 경우 위의 모든 변수를 보정한 이후에도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해 있는 군에서(AOR: 1.76, 95% CI: 1.13~2.72) 성 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가출 경험과 성 피해 경험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일반적 특성과 선행연구에서 성 피해 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가출 경험과 성 피해 경험 사이에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에는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중·고등학생 7,11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가출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은 3.8%로 나타났다. 성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4.1%로 조사되었다. 이

Table 3. Influence of Runaway Experience on Sexual Victimization from Multivariate Analysis (N=7,101)

Variables	Categories	Adjusted OR	95% CI	p
School grade	Middle	1		
	High	1.31	0.97~1.78	.082
	Low	0.96	0.71~1.30	.777
Economic status	High	1		
	Middle	0.86	0.65~1.53	.318
	Low	1.42	1.03~1.97	.034
Subjective health	Good	1		
	Poor	1.19	0.89~1.59	.233
Suicidal ideation	No	1		
	Yes	1.80	1.37~2.38	<.001
Depression	No	1		
	Yes	1.36	1.04~1.78	.025
Violence victimization from parents	No	1		
	Yes	1.06	0.81~1.39	.678
Violence victimization from teachers	No	1		
	Yes	1.56	1.20~2.03	.001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No	1		
	Off-line only	5.00	3.56~7.01	<.001
	On-line only	2.61	1.79~3.80	<.001
	On/off-line both	6.62	4.76~9.22	<.001
Self-esteem		0.99	0.94~1.05	.732
Runaway	No	1		
	Yes	1.76	1.13~2.72	.012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는 2014년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11%의 가출 경험보다 많이 낮은 수치이다 [1]. 또한 남·녀 청소년의 성 피해 경험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찾을 수 없어 선행연구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가출 청소년 중 17~35% 정도에서 성 피해를 경험했다는 연구와 [12,13], 미국 성인 여성의 25~50%는 청소년기에 성 피해를 경험했다는 결과와 [22] 비교해보면 상당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조사가 가출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이 아니라, 가출을 경험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여전히 가출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본 설문은 학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면 솔직한 응답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결과, 여러 가지 관련 변수를 보정한 이후에도, 청소년의 가출 경험은 성 피해 경험의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서 성 피해 경험의 오즈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가출 경험 유무와 성 피해 경험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어 다른 연구결과들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출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성 피해 경험이 증가한다고 하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며 [13], 가출 청소년은 신체적 폭력이나 성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선행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15]. 따라서, 청소년에서 성 피해 경험을 막기 위해서는 가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며,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혹시라도 발생했는지 모르는 성 피해 경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정신적 트라우마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둘째, 공변량 변수 중 성 피해 경험의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가정경제수준, 자살생각, 우울감, 교사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학생,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가정 경제 수준의 경우 '상'인 경우에 비해 '하'인 경우 성 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수준이 낮은 학생에서 성 피해 경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찾을 수 없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제수준이 취약한 경우 성 피해 경험의 위험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23], 음식이나 주거의 불안정이 성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자살생각이 있

는 경우 성 피해 경험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미국의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17] 및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18]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우울감을 경험한 학생에서 성 피해 경험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 또한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16]

또한 교사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학생에서 성 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어 이전의 결과와 비교할 수 없다. 특히, 외국의 경우 학교나 학원 교사의 체벌이 허용되지 않는 문화가 많아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외국문헌에서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외국의 연구에서는 가정 폭력의 경험과 성 피해 경험과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하였는데 [19], 본 연구에서는 가정 폭력의 경험은 유의하지 않았고, 교사로부터의 폭력이 유의하였다. 본 설문조사에서 교사로부터의 폭력은 학교나 학원 교사로부터의 신체적인 벌이나 모욕적인 욕설 경험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에 성 희롱 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관해서는 추후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경험이 성 피해 경험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성폭력의 가해자가 됨으로써 [20]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즉,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의해 성 피해를 경험할 위험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 폭력에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성 관련 폭력도 포함되어 조사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가지 주목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학교 폭력의 경험을 온라인 폭력만을 경험한 군과 오프라인 폭력만을 경험한 군, 온라인과 오프라인 폭력을 모두 경험한 군으로 구분하였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폭력을 모두 경험한 군에서 성 피해 경험의 오즈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두 가지 학교 폭력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가 성 피해까지 경험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재 가출을 한 청소년이 아니라 가출을 경험했으나 현재는 집에 돌아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 연구이므로 최근 1년 이내의 가출 경험과 최근 1년 이내의 성 피해 경험을 조사하였으므로, 시간적인 전후 관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두 변수의 전후 관계 및 원인 결과 관

계를 파악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가출 경험이 성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친 것 일수도 있고, 성 피해 경험으로 인해 가출이 이루어 졌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가출 경험과 성 피해 경험의 관련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는 이를 시도한 첫 번째 연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가출 청소년에서 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성매매에 치우친 연구들이 있을 뿐,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등을 포괄하는 성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역시 본 연구가 다른 연구와는 다른 차별점이 있다는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에서 가출 경험 여부가 성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가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있는 청소년들에서 성 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가정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자살생각과 우울감을 경험한 학생, 교사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학생,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에서 성 피해 경험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 피해 경험을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가출을 경험한 학생들이 성 피해를 경험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 성 피해를 경험하였다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인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도 개발 및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단면조사연구를 분석하였으므로 가출 경험과 성 피해 경험 사이에 원인과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이에 관한 종단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출 경험과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모두 포괄하는 성 피해 경험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연구이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urvey on the harmful environment of youths in 2014 [internet]. Sejong: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 [cited 2019 July 16]. Available from: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report/reportSearchResultDetail.do?cn=TRKO201600013330>.
2. Kim YS, Kim HW. Exploration on adolescents' runaway and related variables of family, school, and self-concept factors. *Journal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2007;5(2):43-55.
3. Kim S. A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on runaway youth in Korean: journals from 2001 to 2010.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2013;15(3):1-22.
4. Lee HJ. A study on the protective factors for runaway and homeless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05; 12(4):283-304.
5. Han SC. Exploration o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f adolescent runaway.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2008;14(1):273-298.
6. Ryu SH, Park KS, Seo MS. Factors influencing run away impulse in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2;23(1):1-12.
7. Chung HK, Ann OH. Predicting factors on youth runaway impulse.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01;7(4):483-493.
8. Noh HL, Kim HT, Lee JI. A study on the psychosocial factors that influence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of runaway youths. *Studies on Korean Youth*. 2005;16(1):5-34.
9. Ko M, Hong M, Kim YE, Ha J, Kee SM, Kim HS. Depression, attachment and addiction problems in runaway youth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016;27(3):181-187. <https://doi.org/10.5765/jkacap.2016.27.3.181>
10. Yuk HR. Ecosystem factors having influence on depression of runaway youth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2014;16(3): 1-24.
11. Yuk HR.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the recovery process of the sexual exploitation of teen runaway girl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2017;19(1):109-136. <https://doi.org/10.19034/kayw.2017.19.1.05>
12. Colby I. Runaway and throwaway youth: time for policy changes and public responsibility. *Journal of Applied Research on Children: Informing Policy for Children at Risk*. 2011;2(1): Article4.
13. Tyler KA, Whitbeck LB, Hoyt DR, Cauce AM. Risk factors for sexual victimization among male and female homeless and runaway youth.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04;19(5): 503-520. <https://doi.org/10.1177/0886260504262961>
14. Shin KM. Juvenile delinquency (prostitution) risk level. *Joongboo Dalij*. 2019 May 20;Sect.
15. Tyler KA, Hoyt DR, Whitbeck LB, Cauce AM. The effects of a high-risk environment on the sexual victimization of homeless and runaway youth. *Violence and Victims*. 2001;16(4):441-455.
16. Krahe B, Berger A. Longitudinal pathways of sexual victimization, sexual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women and men.

-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2017;9(2):147-155.
<https://doi.org/10.1037/tra0000198>
17. Silverman JG, Raj A, Mucci LA, Hathaway JE. Dating violence against adolescent girls and associated substance use, unhealthy weight control, sexual risk behavior, pregnancy, and suicidality.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01;286(5):572-579. <https://doi.org/10.1001/jama.286.5.572>
 18. Gidycz CA, Orchowski LM, King CR, Rich CL. Sexual victimization and health-risk behaviors: a prospective analysi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08;23(6):744-763. <https://doi.org/10.1177/0886260507313944>
 19. Edinburgh L, Saewyc E, Levitt C. Gender differences in extra-familial sexual abuse experiences among young teens. *Journal of School Nursing*. 2006;22(5):278-284.
<https://doi.org/10.1177/10598405060220050601>
 20. Espelage DL, Basile KC, Leemis RW, Hipp TN, Davis JP. Longitudinal examination of the bullying-sexual violence pathway across early to late adolescence: implicating homophobic name-call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18;47(9):1880-1893.
<https://doi.org/10.1007/s10964-018-0827-4>
 21.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urvey on the Right of Youths and Children in 2016 [internet].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6 [cited 2019 July 16]. Available from:
https://www.nypi.re.kr/brdrr/boardrrView.do?brd_id=BDI DX_PJk7xvf7L096m1g7Phd3YC&menu_nix=d35o34AE&cont_idx=576&edomweivgp=R.
 22. U.S. Department of Justice. Criminal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2006 report) [interne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2007 [cited 2019, July 16]. Available from:
<https://www.bjs.gov/content/pub/pdf/cv06.pdf>.
 23. Breiding MJ, Basile KC, Klevens J, Smith SG. Economic insecurity and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017;53(4):457-464.
<https://doi.org/10.1016/j.amepre.2017.03.021>